

[성경적 비즈니스 훈련의 사례와 간증]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항상 위험과 심각한 도전을 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새신자들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되고 소외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 배경을 가진 새신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슬람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픈도어선교회는 지역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르심에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모세(Mose)**는 검은 피부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중년남성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환경은 무자비한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극단적 적대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적대적인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주님께 돌아오는 돌보라는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무슬림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대가를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라는 무슬림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는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살해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을 죽이기 위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마엘을 계속 훈련시켰고 일 년이 지난 후에 무슬림들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시 집에 없었고 저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을 죽였고 교회 근처인 풀밭에 버렸습니다. 저희에게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첫째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잔인하게 내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사역에서 경험한 최악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힘을 간구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3년의 신학 과정과 “폭풍 가운데 굳게 서기”(SSTS: 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 그리고 전도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새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훈련들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방법을 찾고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레이몬드(Raymond)**는 사역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사역자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새신자들의 현실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종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유혹했고 포기하도록 시도했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생계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생계를 찾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채석장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무슬림 배경

의 신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임마누엘(Emmanuel)**은 이 지역의 목회자로서 오픈도어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신의 교회가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오픈도어가 “자립 사업 그룹”(SHG) 프로그램으로 몇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고 돌아갔고 저의 교회에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12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립 비즈니스 방식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점점 대지는 늘어났으며 방목을 통한 소와 염소 그리고 닭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 개의 그룹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그룹의 구성원들은 사업을 시작했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교회와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무언가를 베푸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심지어 교회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종자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돕는, 특별히 박해 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견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픈도어가 저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오픈도어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돕는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전도 활동에서 얻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오픈도어를 통해서 배웠던 “비즈니스 경영의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픈도어가 우리에게 해준 일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픈도어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오픈도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